



## 한 성인에게 보내진 편지들

복자 과달루페 오르티즈

## 차례

|                     |     |
|---------------------|-----|
| 독자에게 드리는 글 .....    | 3   |
| 편집 일러두기 .....       | 7   |
| 과달루페의 간략한 생애.....   | 11  |
| 과달루페의 생애 연표.....    | 19  |
| I. 땅에 두 발을 딛고. .... | 28  |
| 일상의 거룩함 .....       | 28  |
| II. 언제나 곁에 .....    | 40  |
|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 40  |
| III. 넓은 마음.....     | 71  |
| 사도의 기쁨.....         | 71  |
| IV. 봉사하고 싶은 마음..... | 89  |
| 하느님을 위한 일 .....     | 89  |
| V. 여기 있습니다.....     | 111 |
| 길과 사명.....          | 111 |
| 에필로그 .....          | 135 |

## 독자에게 드리는 글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찌면 손으로 쓴 편지보다 이메일 받은편지함이나 소셜 미디어 알림을 더 기다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봉투를 뜯거나 종이를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픽셀로 변환된 친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종이든 디지털이든, 글 속에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담아 보낸 이의 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수록된 글들은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가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데 발라게르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알았던 한 여인의 영혼에서 길어 올린 단편들입니다. 과달루페는 오푸스테이의 창립자, 그녀가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천국이 자신의 목적지이며 세상이 그 길임을  
확신했던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1944 년, 화학 교수였던 과달루페는 성  
호세마리아를 만나, 하느님께서 직업적 일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성화의 길을 제시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에게 오푸스데이  
입회를 청하는 그 첫 편지는, 이후 과달루페가  
보낸 350 통의 편지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 서신  
교환은 1944 년 3 월 19 일에 시작되어, 성  
호세마리아가 로마에서 선종하기 나흘 전인  
1975 년 6 월 22 일에 끝을 맺습니다.

삼백여 통이 넘는 편지들, 손으로 쓴 수천 개의  
단어들, 한 성인에게 맡겨진 글들. 과달루페는  
삼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 호세마리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열어 온전한 성실함과 신뢰로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들은 종종 기도 시간에서 우러나오는 영성

생활의 토로입니다. "기도 중에도, 신부님께 쓰는 편지에서도, 베드로 신부님과 이야기할 때도—저는 저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볍게 됩니다." (1950년 6월 29일, 멕시코에서. 베드로 카스키아로 신부를 가리킴) 이 편지들은 아버지께 쓰는 딸의 자연스러움으로, 또한 기도 중에 하느님과 나눈 이 속마음을 공유해 온 사람의 단순함으로 쓰였습니다. 과달루페는 세상에 새로운 성화의 길을 열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분께 빛과 기도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를 깊이 알아 주시고, 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도록." (1962년 7월 21일, 팜플로나에서.)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가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데 발라게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이 편지들이 발견해야 할 보물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으로 높아진 우리의 시각에서 읽으면, 이 편지들은 다른 뉘앙스를

됩니다. 바로 두 성인 사이의 말씀들입니다. 2002 년 성 호세마리아의 시성과 2019 년 과달루페의 시복은, 바르바스트로 출신의 그 사제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빛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적·직업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과달루페는 직업과 일상적인 삶을 통한 이 성화의 길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편지들 안에서 과달루페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여기 엮인 단편들은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달루페가 자기 손으로 쓴 글을 읽으면서, 성인들도 삶과 피를 지닌 사람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도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도움을 청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 편집 일러두기

이 텍스트 선집은 과달루페가 성 호세마리아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발췌한 단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 편지들을 개인 문서들 사이에 보관해 두었으며, 현재는 오푸스 데이 속인 사제단 총문서고(이하 AGP)의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 관련 자료 부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자연스러운 필치로 쓰였으며, 그렇기에 각각의 편지는 아버지에게 대한 신뢰의 고백이 지닌 자연스러운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2018 년 6 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교황청 시성성이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의 기적 승인 교령을 반포하도록 허가하심으로써 그녀의 시복을 향한 길이 열렸고, 이 여인의 모습은 새로운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푸스 데이 속인 사제단 단장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뇨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달루페의 삶은, 매 순간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너그럽게 응답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드리는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그리고 나아가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의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해 줍니다.

주님께, 과달루페의 모범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 매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열정과 개척 정신으로 기꺼이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청합니다.”

과달루페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그녀의 풍요로운 신심 생활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매력적인 증언임을 발견하였고, 그리하여 이 몇몇 단락들을

출판하는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이거나 신학적인 관심으로 과달루페의 생애를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텍스트들을 기도를 위한 도움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과달루페는 이 편지들을 성 호세마리아에게 자신의 영혼을 단순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썼으므로, 이 편지들은 많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의 말씀처럼 “매 순간의 ‘작은 의무들’을 실천하는 것” (“길” 817 번) 안에 있는 “위대한 성덕”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과달루페의 편지 단락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과달루페는 매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려는 열망 안에서, 자신의 일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길과 사명의 확인이 되었던 모든 것 안에서 그 위대한 성덕을 발견하였습니다. 텍스트들은 과달루페의 삶에서 핵심적인 현실들을 나타내는 다섯 개의 큰 장으로

묵였으며, 이는 여러분의 삶도 밝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대 독자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몇 표현들을 본문 주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지에 언급된 몇몇 인물들의 성씨나 필요한 맥락적 정보 등을 대괄호 안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달루페가 자신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사용하였으나 그 본래의 의미를 흐릴 수 있는 몇몇 용어들, 일반적으로 영적 생활과 당시의 관습에 관련된 용어들을 주석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의 생애를 더 알고 싶고 각 편지의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독자를 위해, 아래에 그녀의 간략한 인물 소개와 생애의 주요 순간들의 연대기를 제시합니다.

## 과달루페의 간략한 생애

과달루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는 1916 년 12 월 12 일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누엘과 에올로히아의 네 번째이자 막내딸로, 부모님은 그해 어린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은 터였습니다.

과달루페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육군 지휘관이었던 아버지가 테투안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과달루페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그녀는 성적뿐 아니라 대담함과 리더십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무렵 류머티즘성 열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에는 완치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 병은 훗날 심장 기능 저하와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32 년, 가족은 마드리드로 돌아왔습니다. 과달루페는 이듬해 학업을 마치고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 학년 수강생 중 여학생은 다섯

명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결혼 후에도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과달루페는 자연과학을 좋아했고,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가정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기도 했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학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족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당시 육군 중령이었던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오빠 에두아르도가 사면을 얻어냈음에도, 부하들이 총살당하는 동안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마누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달루페는 어머니, 오빠와 함께 슬픔과 평온함 속에서 그 마지막 밤을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그분의 모범이 너무나 커서 훗날 과달루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딸은 스페인을 떠나 국민과 지역을 통해 다시 입국하여 바야돌리드에 정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드리드의 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과달루페는, 어느 날 성미사에 참례한 뒤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당을 나오면서 지인에게 좋은 사제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자, 그 친구가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신부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과달루페는 1944 년 1 월 25 일, 스물일곱 살의 나이로 오푸스데이 창설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대화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피정 강좌에 참가했고, 그 자리에서 오푸스데이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3 월 19 일, 정규 회원으로 입회를 신청했습니다.

과달루페는 오푸스데이 최초의 여성 센터로 이사하여,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여러 기숙사와 대학 기숙사(라 몬클로아, 아반도)의 가사 담당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일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문화적·인간적·직업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창설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푸스데이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을 만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1947 년 그녀는 다시 수도로 돌아와 수르바란 대학 기숙사의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오푸스데이 행정 업무와 병행하면서도, 성 호세마리아에게서 배운 대로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틈나는 대로 화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1947 년에서 1948 년 사이에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 심화 과목 네 개를 이수했습니다.

1 년 후, 성 호세마리아는 그녀에게 오푸스데이 여성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두 여성 회원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50 년 멕시코에 도착한 뒤,  
화학 박사 학위 과목 일부에 등록했습니다.

과달루페는 멕시코에서 채 6 년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하는 능력, 헌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멕시코시티에 최초의 여학생  
기숙사를 열었는데, 27 세대 여성 시인 집단의  
유일한 여성 구성원인 에르네스티나 데  
상푸르생 같은 저명한 여성들도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아닌 여성들과 기혼  
여성들로 사도직을 확장하고, 쿨리아칸과  
몬테레이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타캄바로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농촌 여성들의  
인간적·직업적·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담당했으며,  
멕시코 오푸스데이 최초의 피정 집인  
몬테팔코를 세웠습니다. 이 집은 얼마 후  
여학생을 위한 초·중등학교, 의류 작업장,  
기숙사로 확대되었습니다.

1956년 10월, 곤충에 물려 열병과 말라리아를 앓은 뒤 처음으로 심장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 이주하여 성 호세마리아 곁에서 오푸스데이 중앙 행정 업무를 맡았고, 12월에는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과달루페는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1957년 7월 19일 승모판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운 듯 보여 로마로 돌아갔으나, 12월 29일 심각한 심부전 증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마드리드에 정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활동은 환자답지 않게 왕성했습니다. 오푸스데이 회원들을 위한 지도와 교육 업무를 화학 연구와 계속 병행했습니다.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에서 일한 최초의 여성 피에다드 데 라 시에르바를 만나, 함께 단열 내화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허를 받고 후안 데 라 시에르바 상을 수상했으며, 1965년에는 ‘짚겨 재를 이용한 단열 내화재’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최우수 성적(Cum Laude)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보다 몇 해 전부터 라미로 데 마에스투 학교에서 물리학을, 여성 산업기술학교에서 물리학·화학·수학을 이과 겸임교수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에는 정교수직을 취득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 학교에서 11년간 근무하며 부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교장직 제안은 사양했습니다. 1968년에는 가정과학연구소(CEICID) 기획 및 설립에 참여하여 부소장과 섬유화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1975년 6월 1일, 수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나바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후 의사들이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주 후 호흡 부전이 나타나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7월 16일, 카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충실함과 평온함과 신뢰 속에서 하느님께 삶을  
봉헌했습니다.

## 과달루페의 생애 연표

1916

12 월 12 일 과달루페, 마드리드에서 태어남.  
마누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와 에울로히아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의 셋째 딸.

12 월 24 일 산 일테폰소 본당에서 세례를  
받음.

같은 해, 세 살 된 오빠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가 세상을 떠남.

1923

8 월 31 일 아버지가 세고비아 포병학교  
교수로 발령되어 온 가족이 이사함.  
과달루페는 라 에플라시온 학교에서 수학함.

1924

5 월 18 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세고비아에서  
첫영성체를 받음.

1927

마누엘 오르티즈 데 란다수리가 아프리카 주둔 스페인 육군 총사령부로 발령되어 온 가족이 테투안으로 이주함. 과달루페는 마리아회가 운영하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필라르 학교에서 중고등과정을 시작하며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이 됨.

1928

열두 살의 나이에 류머티즘성 열병으로 인한 세균성 심내막염을 앓음. 당시에는 완치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 병은 훗날 심장 기능 저하와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1932

아버지가 마드리드 육군부로 발령되어 육군 중령으로 진급함. 과달루페는 마드리드 미겔 데 세르반테스 학교에서 중고등 과정을 계속함.

1933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10 월에 마드리드 중앙대학교 화학과 학사 과정 입학. 1 학년 여학생은 다섯 명뿐이었음.

1936

과달루페는 스무 살. 역시 화학과 학생인 카탈루냐 출신 카를로스와의 교제 중. 결혼 계획은 있으나 서두르지 않음.

7 월 18 일 스페인 내전 발발, 순조롭게 이어가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됨.

9 월 8 일 55 세이던 과달루페의 아버지, 마드리드 모델로 형무소에서 총살당함. 아들에 두아르도가 수많은 노력 끝에 사면을 받아냈으나, 부하들이 처형되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는 것을 거부함. 과달루페는 어머니, 오빠와 함께 마지막 밤을 아버지 곁에서 보냄.

1936 년이 끝나기 전, 과달루페와 어머니는 스페인을 빠져나가 국민과 지역을 통해 재입국하여 바야돌리드에 정착함.

1940

6 월 학업을 마치고 이르란데사스 학교와 리세오 프란세스에서 근무 시작.

1944

성미사에 참여하며 하느님께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을 한 뒤, 지인에게 사제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음. 지인이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신부님의 연락처를 알려줌. 과달루페는 창설자에게 전화를 걸어 1월 25일 호르헤 만리케 가에 있는 센터에서 처음 대면으로 만남. 훗날 ‘그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회상함. 3월 12~17일 피정 강좌 참가.

3월 19일 오푸스데이 정규 회원으로 입회 신청.

1945

5월 18일 라 몬클로아 기숙사 가사 센터로 이사.

9월 15일 새로 개설된 빌바오 아반도 기숙사 가사 센터로 이사.

1947

9월 15일 과달루페, 마드리드로 돌아와 수르바란 대학 기숙사 초대 원장이 됨. 오푸스데이 중앙 고문부 직책과 병행함.

10 월 화학 박사 학위 과목 다섯 개 등록.  
이듬해까지 필요한 전공 심화 과목 네 개를  
모두 이수함.

## 1950

3 월 5 일 오푸스데이 여성 사도직 활동  
시작을 위해 멕시코로 출발. 멕시코 지역  
고문부 비서직 수행. 도착 후 화학 박사 학위  
과목 일부에 등록.

4 월 1 일 멕시코 최초의 여학생 대학 기숙사  
'코펜하게'가 개소됨.

## 1951

오푸스데이의 사도직 활동이 쿨리아칸과  
몬테레이로 확장됨. 타캄바로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농촌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 코펜하게에서 초등 교육이  
시작되고, 과달루페는 사립 및 공립 인가를  
받는 데 기여함.

## 1952-1956

곤충에 물려 심한 열병과 말라리아를 앓음. 이  
병이 건강을 악화시켰으나 왕성한 활동을  
거의 줄이지 않음. 농촌 여성을 위한  
초·중등학교 개설을 목적으로 몬테팔코  
농원을 찾아 복원 공사를 시작함.

## 1956

10 월 심장 이상 첫 증세 나타남.

10 월 24 일 오푸스데이 로마 중앙 고문부  
부비서로 임명되어 로마로 이주.

12 월 월말에 심각한 심장 발작 재발.

## 1957

5 월 19 일 의료 치료를 위해 마드리드로 이동.

7 월 19 일 마드리드 콘셉시온 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증 수술 받음. 회복이 순조로운 듯  
보임.

10 월 10 일 로마로 귀환.

12 월 29 일 심각한 심부전 증세가 다시  
나타남.

## 1958

5월 12일 정기 검진을 위해 마드리드로 이동.  
성 호세마리아, 로마의 기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페인에 머물도록  
권유함.

1960

CSIC 최초의 여성 연구원인 화학자 피에다드  
데 라 시에르바를 만나 단열 내화재 연구를  
시작함. 연구 결과가 우수하여 특허 등록됨.  
후안 데 라 시에르바 상 응모 및 수상. 박사  
논문 작성 시작.

1962-1964

마드리드 라미로 데 마에스투 학교 물리학  
교사 직책과 병행.

1964

10 월 1 일 여성 산업기술학교에서 이과  
겸임교수로 물리학·화학·수학 강의 시작.

1965

6 월 8 일 ‘쌀겨 재를 이용한 단열 내화재’를 주제로 화학 박사 학위 논문 발표. 최우수 성적(Cum Laude) 취득.

1967

11 월 29 일 여성 산업기술학교 이과 정교수직 취득.

1968

가정과학연구소(CEICID) 기획 및 설립에 참여. 부소장과 섬유화학 교수로 일함.

1974

여성 산업기술학교 부교장으로 임명됨. 건강상의 이유로 교장직 제안은 사양함.

1975

6 월 1 일 수술 가능성 검토를 위해 팜플로나로 이동, 나바라대학교 병원에 입원.  
7 월 1 일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수술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7 월 14 일 새벽 4 시 30 분에 호흡 부전 증세가 나타나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됨. 오후에 병자성사를 받고  
관상동맥 치료실로 옮겨짐. 48 시간에 걸친  
임종 과정에 들어감.

7 월 16 일 오전 6 시 30 분에 선종함.  
카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I. 땅에 두 발을 딛고.

### 일상의 거룩함

1949년 6월, 마드리드. 과달루페는 대학 기숙사 “수르바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7,000 명도 채 되지 않는 여대생들을 위해 마련된 몇 안 되는 기숙사 중 하나였습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하던 시절, 경제적 운영 문제가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과달루페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재정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숙사 정원을 늘리고 “수르바란”에 머무는 여대생들을 더 잘 교육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들이 하느님과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그것은 이후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과달루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일상 속의 성녀였지요. 그녀는 두 발을 굳건히 땅에 딛고 살면서도, 늘 시선은 하늘을 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의 모든 면을 거룩함의 재료로 삼으면서 말입니다.

*빌바오, 1945 년 10 월 29 일*

아버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별로 없어서 맨 마지막에 남겨 두겠습니다. 제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도 아시지요. 개인 소지품뿐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처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니사는 제 사정을 잘 알기에 물건마다 제자리를 두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옷장 등을 정리해 줍니다. 저도 그것을 잘 유지하고 물건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래도 책상을 조금 더럽히거나 침대 장식 구슬을 떼어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려 가끔 자매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전보다 훨씬 더 큰 열정으로 맡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애가 조금 끼어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너무 속상하거든요. 요즘 여러 번 영적 독서를

빠뜨렸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 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지시받는 모든 것이 쉽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기도 중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그분만을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낮 동안에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때가 있습니다. 감실에 주님을 모시는 날이 곧 올까요? 얼마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느낀 감격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정말 미칠 것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매우 행복하고, 날마다 사목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빌바오, 1946 년 11 월 11 일*

아버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 저는 하루 종일 가장 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청하며 보내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즐겁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도 낙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잠시 후에는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올해는 날마다 다르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 집 운영(식량 부족의 어려움과 함께)과,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집에 적응하지 못한 자매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 이 작은 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걱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항상 평온하고 기쁘게 계시니, 저도 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같은 자세를 취하려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들 덕분에 하느님 현존이 더 깊어지고, 날마다 저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도실에서만 제 큰 결점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때 저를 낮추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통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생각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1949 년 6 월 7 일*

아버지, [...] 지금까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내년 과정에는 그 친구들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르바란”은 아직도 여학생들로 가득합니다. 20 일은 되어야 대부분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아버지, 저를 여럿으로 나누어 모든 일이 안심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께 청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 또한 내년에 기숙사를 조금 확장하고 싶습니다. 코비안 건물의 한 층을 빌릴 수 있다면 말이지요. 정말 좋을 텐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어, 저희를 아끼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 그러나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기도를, 모든 것을 채웁니다. 또한 이 문제들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면서,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것들과 매우 하느님적인 것들을 하느님께 함께 봉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닐까요? 땅에 두 발을 딛되, (잠깐씩이라도) 늘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카무냐스 (톨레도), 1949 년 10 월 2 일*

아버지,        플로렌티나의        고향인        이  
마을(톨레도)에서 편지를 드립니다. 기름과  
밀가루를 구하러 그녀와 함께 왔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 내내 평균 식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청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 기름이  
필요하다고, 자매들 사이의 애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가루와 더 큰 하느님 사랑도  
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함께 청해 주십시오.  
[...]

*멕시코시티, 1950 년 12 월 18 일*

요즘 교황님(비오 12 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이 냉전과 세계  
강대국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편 2 편이 떠오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교황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교황님 뒤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로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기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과 자매들에 대한 따뜻함(여기서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합니다)을 강인함과 굳건함과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유로도 그들을 최대한 돕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시티, 1951년 3월 15일*

[...]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과 저를 위해 주님께 드려야 할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저를 위한 시간을 내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집이 품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숙생들과 찾아오는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사도직, 우리 자매들의 양성, 그리고 모범. 집의 질서와 조직. 경제적 문제들. [...] 이 모든 것이, 저를 아시는 아버지께는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낙심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작든 크든 어떤 것에서도, 결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시티, 1953 년 7 월 3 일*

아버지, 어제부터 주님께서 집에 계십니다. 페드로(카시아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시고 감실에 모셔 주셨습니다. 오늘 밤, 주님을 처음 모신 첫날 밤인데, 마침 첫째 금요일이라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

개인적으로는 신심 생활 규범을 꽤 소홀히 했는데, 집이 더 잘 정돈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심했습니다.

*멕시코시티, 1955 년 4 월 24 일*

아버지, 피정을 마치고 나서부터 편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4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몬테팔코”에서 했습니다. [...]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고, 연중 고해성사를 제대로 드렸으며, 하느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키고 싶은 몇 가지 결심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보는 제 모습 그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모습 그대로 서서, 결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적 위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기복 없이 거의 쉬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평온한 것 같습니다. 제 길 위에서, 제 곁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그 확신이 모든 것에 기쁨을 주고,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일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버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정말 하늘로 가는 길일까요? 너무 편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자매들의 헌신 부족 등을 볼 때만 힘들고, 그마저도 평화를 잃지 않고 견딥니다.

피정에서의 핵심 결심은 다른 자매들이 이끌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 물러나면서 그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많이 이끌지 않았습니까?  
[...]

*성모 병원 (마드리드), 1957 년 7 월 25 일*

아버지,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났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모두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지만  
정신적으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매들과  
아버지와 집의 모든 것과의 일치와 사랑과 힘을  
이전과 다르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실 자격이  
없는데요. 아버지의 편지와 엔카르니타  
(오르테가)와 모든 자매들의 편지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용감하게 잘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느님  
현존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드리드, 1958 년 6 월 4 일*

아버지,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나서  
편지드리려 기다렸는데, 늦어지는지라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진단도, 앞으로의 방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고, 다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나처럼,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시는 대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생 에두아르도가 이 며칠 안에 마드리드에 도착할 것이고, 그도 의사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팜플로나로 가는 길에 들르는데, 그도, 또한 아버지의 딸인 그의 아내 라우리타도 매우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이 팜플로나에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과 자녀 일곱이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날마다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지금은 가브리엘 사목(전문직 종사자와 기혼자들을 위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벨라스케스” 거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몬텔라르 (마드리드의 한 센터)만으로는 역부족이거든요. 모든 것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요! 알바로 신부님이 첫 미사를 드리시고, 그날 바로 감실에 주님을 모셔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실제로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멀리 있을 때도 점점 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 II. 언제나 곁에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록해질 수 있을까요? 과달루페는 완벽 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작은 세심함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화의 기회가 되었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용서를 청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하느님께서 각 개인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성인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하느님의 친구들, 131 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달루페는 이 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하느님의 손안에서 평안히 쉬었습니다.

*빌바오, 1945 년 9 월 25 일*

아버지께: 요즘 제가 느끼는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것이 가장 말하기 어려우니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몹시 슬프게 했던 유혹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부감독이 되지 못하고 카르멘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자 조금 슬퍼졌지만, 감독 니사(곤살레스)에게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니사와 형제적 대화 시간에, 마드리드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에 편도선이 부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혼한 증상이어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씀드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아픈 적이 없는 저에게 이 작은 불편함은 오히려 주님께 무언가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라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것이 주님께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어떤 날은 하느님의 현존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 [...]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새 집으로 오시기를 원하셨고, 곧 저와 함께 머무시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날 기도 중에 줄거나 대체로 산만합니다. 항상 순명하고 모든 것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때로는 자존심이 고개를 내밀기도 하지만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변명하려는 제 반응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지만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마드리드를 떠난 것을 아쉬워하셨지만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와 몹시 도움이 필요한 제 오빠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빌바오, 1945년 12월 12일*

아버지께: 오늘은 제 축일입니다. [...]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알바로 신부님께서 항상 제가 정말

행복한지 물어보시는데, 제 일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 면에서 저에게 결함(특히 허영심과 자존심)이 많이 있음을 알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많이 기도했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가 더 나아지도록(더 극기하고, 더 겸손해지도록 등...) 도와 주신다면, 제가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들, 오푸스테이의 발전, 어머니와 형제들의 필요(특히 그들이 착해지는 것).

[...] 이제 우리 집에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게다가 제 방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그분을 향한 제 마음과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빌바오, 1946 년 1 월 12 일*

아버지께: 밤마다 양심성찰을 할 때, 생활계획 중 무언가를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독서를 못 했고, 어떤 날은 목주기도 일부가 빠지거나 거의 의식 없이 바쳤고, 기도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 지금 이것을 쓰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아시듯이,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 부재와 큰 무질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싸우고 노력합니다(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면,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자존심도 많지만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저는 경당을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고 감실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분께 입맞춤을 드렸는데, 불경한 것이 아닐까요?

*빌바오, 1946 년 4 월 1 일*

아버지께, 제 자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호세 마리아 신부님(에르난데스 가르니카)께 말씀드렸듯이, 집과 자매들이 저를 너무 채워주어서 저의 작은 걱정들은 생각조차 안 납니다.

기도는 하루의 작은 문제들을 청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너무 계속되어서 때로는 주님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얼마나 느끼는지요! 특히 자매들의 신뢰와 함께 모임에서 때로 어떻게 떠오른 것인지 모를 말들을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또 호세 마리아 신부님께 극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중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식욕이

넘치지만 무엇을 먹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혹은 적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저를 이유식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날이 올 때를 위해 지금 받는 은총을 저장소처럼 간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금처럼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빌바오, 1946 년 4 월*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결점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글을 쓰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평온합니다. 때로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유혹이 오기는 합니다(아버지께서 너무 나쁘게 보시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하게도,

말씀드릴 때가 오면 그냥 펜이 흘러가도록 놔두고, 쓴 것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에 저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매일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작지만 일정한 세부사항들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그냥 감사드리며 늘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자명종이 멈춰버렸는데 주님께서 저를 깨워 주셨습니다. 비록 그 순간(시계가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확히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

주님께서는 적절한 순간에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제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요).

아버지, 저는 매우 행복하고 주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동시에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자존심과 허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잘 행동하고 싶습니다.

*빌바오, 1946 년 7 월 28 일*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어디서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드리드겠죠,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와 이 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저는 때로 여전히 엉망이지만,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말씀드리니, 그것이 나타날 때도 아주 평온합니다. 매일 감실 앞에 더 가까이 머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 머리가 깨져도 기쁘게 있으려 합니다.

*빌바오, 1946 년 12 월 23 일*

아버지께: 이 편지는 아마 자매들이 로마로 가져갈 것이고 성탄 시즌에 딱 맞게 도착할 것입니다. [...] 구유를 놓고 이 시즌의 모든 준비를 하며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

아버지,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게다가 항상 기도가 어렵던 저인데, 이제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경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나갈 것이고 다시 멍해질 것을 알지만, 상관없습니다.

*마드리드, 1947년 1월 19일*

아버지께, 모든 것이 선하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면) 기쁨을 주고 두렵지 않습니다. [...]

우리가 이 거룩한 열정을 전하고 영망이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내면적인 것들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기도와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밤에 양심성찰을 할 때 많은 결점(경건한 생활의 규범들, 하느님의 현존, 화를 내거나 허영의 순간들)을 보고는 많이 겸손해지고 또 기쁩니다.

*빌바오-마드리드, 1947년 4월 7일*

아버지께: 기차에서 편지를 씁니다. [...] 성주간은 매우 바빴고, 저는 감실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고 확신하니 기쁩니다. 제 기도는 단순히 감사드리고 청하는 것이며, 저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잊습니다. [...]

*로살레스(마드리드), 1947년 6월 30일*

아버지께: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는지요. 기도 중에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머리가 너무 지쳐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주님께 기대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아주 행복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느리고 빨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드리드, 1947년 9월 21일*

때로 학기를 생각하면 조금 두렵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확신하니 평온합니다. 요즘 집, 옷장 등에 몰두하느라 생활규범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목주기도, 독서를 빠뜨렸고 기도할 때 집안의 어수선했음에 대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일들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매일 하느님의 더 큰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질적인 걱정이  
많을 때 제가 조금 홀으러 집니다. [...] 아버지,  
기숙사에 많은 자매들이 오도록 청하려 하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올 것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드리드, 1948 년 12 월 22 일*

아버지께: 피정 중이고 이 순간을 이용해 편지를  
 씁니다. 이틀 후면 성탄 전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드리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팎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매일 더 많은  
 고뇌와 마음을 기울여 하느님과 자매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기도에서, 극기에서  
 등,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부족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집의 질서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저의 의사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매일 오후스데이와 아버지와 더욱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위해 지매들과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쉽고, 당분간 그 열정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견고한 내적 삶이 부족합니다.

*몰리노비에호(세고비아), 1949년 1월 11일*

아버지께: 오늘 피정을 마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오후스데이와 아버지와 하느님께 너무나 배은망덕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호세 마리아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다시 평온 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아시듯이, 오후스데이에 오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적게 드리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후 오푸스테이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고, 긴장되었으며 피정이 끝나고 나서 투쟁하고, 질서를 만들어가고, 기숙사의 자매들과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착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스리지 못해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제 성격이지요. 진지함이 부족합니다. 늘어가는 제 나이와, 무엇보다 오푸스테이가 저에게 지우려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때로 잊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눈이 쌓여 있었지만 햇살 좋은 날들이었고, 모임들 중간에 들로 나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

아버지의 도움, 언니 자매들의 도움, 모든 도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것은 오직(아주 작은) 힘과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매우 큰 소망뿐입니다.

*몰리노비에호(세고비아), 1949년 10월 17일*

아버지께: 피정 중에 몰리노비에호에 있습니다. 열 두 명의 자매들과 우리 둘, 총 열넷입니다. 더 많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았더라도 기쁠 것입니다, 아시지요. 하지만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그 생각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 중에 짧은 시간을 봉헌하며, 아직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 과달루페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청하지만, 제 기도는 오랫동안 같은 생각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기절하다"라는 말인데, 낙담의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어떤 미사의 봉헌 예식에서 읽었는데,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낄 때 제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너무 행복해서 거의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몰리노비에호(세고비아), 1949년 12월 12일*

아버지께: 오늘은 피정 마지막 날이고 제 축일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머리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요! 오푸스테이, 아버지, 언니 자매들... 이것이 피정에서 거의 유일한 결심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제가 모르는 것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옆에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처럼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푸스테이에 오기 전에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딸로서 오푸스테이에 들어온 이후로 주님께서 주신 큰 은총들에 비해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응답했는지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많은 결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극기하기 위해, 항상 기쁘고 긴장감을 갖기 위해, 저는 힘든 것들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 이렇게 하여 감각적이 아닌

추진력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합니다, *serviam*: "자, 해보자", 그리고 희생자나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으면서요.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침을 받을 때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 오히려 기쁩니다. 육체적 고통도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비록 건강이 아주 좋지만). 그래서 어딘가 아플 때 기다렸던 것처럼 기쁘게 받습니다. 잘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보시듯이, 매우 단순한 저의 내적 투쟁은 솔직히 꽤 쉽습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계획의 규범들을 이행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미사, 영성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자매들이 발전하고, 내적 생활을 잘 하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성소를 가진 분들을 돌보기보다 성소를 얻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교류, 기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께서 쉽게 해주시고 완전히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멕시코에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과달루페 성모님께 많이 청했습니다. 시작은  
힘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영적지도에서,  
고해성사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결코  
진실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느낌뿐입니다.

*멕시코시티, 1950년 5월 13일*

아버지께: 5월 18일에 집에 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모상과 제단을 수리하는 도금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에 첫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날 이 집과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은 제가 첫 영성체를 했던 날이고, 집으로 오게 된 날이며, 서원(종신 서약)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시티, 1950 년 10 월 20 일*

아버지께: 이 편지들과 함께, 집과 우리 모두의 많은 사진들, 그리고 멕시코 사도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매들과 얼마나 일치되어 가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 그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속도를 갖는 것입니다. [...]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쁩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매일 더 큰 열정으로 모든 것에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저를 묶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 무언가 혹은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한다면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도, 사물도. 인간적으로는 이 두 감정을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바탕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비록 이 시기에 특히 기도 시간에는 그분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요. 나머지 시간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거의 잃지 않는데, 너무나 실재적인 방식이어서 혼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

몇 가지 실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나태함을 느꼈습니다 [...]. 한 달 동안 어머니께 편지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친한 친구 마놀리타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덜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과 비슷한 다른 것들과 싸우려 노력하는데, 이것들이 하느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페드로 신부님 앞에서, 저 자신 앞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자매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해지도록 저는 계속 나아 가겠습니다.

*멕시코시티, 1954 년 2 월 1 일*

좋은 소식으로 기쁨을 드리고 싶지만, 진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충실하고, 쓸모 있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외적으로는 잘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규칙들을

지킵니다(대체로, 비록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성격을 다스립니다(과격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집의 규칙을 지키고 삽니다. 일반적인 극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하는 일들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거의 빠지는 적이 없지만, 더 강렬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결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도움과 아버지와 모두의 지지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비록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시키시는 다른 어떤 것도 똑같이 좋아할 것 같지만). 멕시코에서 행복합니다(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 해가 외적으로 큰 도약이 되기를 원합니다(연구 센터, 가정학교... 성소, 과테말라, 유치원), 그리고 내적으로: 더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저와 모두 함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많이 맡겨주십시오. 항상 그래야 합니다.

*몬테팔코(멕시코), 1956년 5월 7일*

아버지께: 몬테팔코에서 옛 동료들 몇 명과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큰 의지, 거룩해지려는 크고 진지한 결심, 하지만 아직 거기서 많이 멎니다. 이번 새해(피정에서 피정까지)는 모든 면에서 크게 추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오는 스페인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사도직이 늘어나고, 활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꿈은 다 필요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누군가와 형제적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물론 지금도 페드로 신부님과 하거나 고해성사 중에 합나다만,

자세한 것들을 위해 제대로 된 형제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내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편지에서 작은 극기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호기심, 작은 불편함, 차가운 물, 영웅적인 분들에 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상대적으로 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데 싸움이 없습니다. 더 많이 혹은 덜 할 수 있지만 싸움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무질서한 애착(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쟁은 일들에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함께 사는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신들을 돌본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장벽 같은 것을 느끼고, 이해 등에서 저의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맡은 직무를 기쁘게 내려놓거나, 계속하거나, 멕시코에서 마지막 사람으로 있거나(제가 오푸스테이에서의 형성이 어느 정도 즉석으로 이루어졌고, 논리적으로 로마에서 오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많은 것 들에서 아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비록 논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명료함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지만), 멕시코를 떠나 어디든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 기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1956 년 10 월 2 일*

저는 이제 그곳에 있게 될 날들을 셉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모두들 집도 자매들도 못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날이 갈수록 느끼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나이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성장을 보여드리는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네요, 그렇죠? 때로는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려는 제 노력을 보실 것이고, 내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보충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약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슬프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이 전혀 비관적이지 않고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맡겨주십시오. 10 월 20 일에 로마에 있어야 한다는 쪽지를 받은 이후로, 기도 중에 오직 처음 아버지를 뵈었을 때의 순종과 단순함으로 가는 것 만을 청합니다. 경험이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이 순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도 주님께 그것을 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도직이 로마에서 며칠 간 하시는 말씀에 의해 방향이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신뢰, 평화, 그리고 하느님과 오푸스테이와 아버지께 대한 크나큰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이 편지가 아주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드린 편지들 중에 보내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리노비에호(세고비아), 1960년 1월 9일*

아버지께: 오늘 아버지의 생신인데, “몰리노비에호”에서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혼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 작은 결점들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청했고(아버지도 잘 하시듯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에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미칠 듯이 기쁩니다. 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날들에 평화와 기쁨, 열정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오늘 주님께 봉헌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드릴 것과, 그보다 제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이멘디 대학기숙사(팜플로나), 1962 년 7 월  
21 일*

아버지께: 오늘 연례 학기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차분한 양심성찰을 한 후,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계속 깊이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맡겨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 안에 두셨고 계속 두시는  
선한 것들과 은총의 양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도 해야 할 것에 응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사람들과  
사도직, 우리 센터 고유의 가족적인 삶, 전문적인  
일에서 공명합니다. 하지만 규칙들만 지킵니다.  
여기서 제 노력은 작고, 기도 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저의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들이고, 아버지와 자매들을 통해 제 손에  
맡겨진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잠깐이라도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고, 아버지도  
 아시듯이 어디서든 항상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해야 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아마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 딸을 위해 아직 활용할  
 줄 모르는 그 은총을 청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1962년 12월 29일*

아버지께: 피정 중이고, 언제나 침묵의 날들이  
 그렇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요. 또한, 같은 이유로,  
 아버지께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을 더 느낍니다.  
 아마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딸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는 일종의 나태함—저는 그렇게  
 부릅니다—을 깨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과의 교류를 강렬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매년 피정에서 이 결심을 해왔습니다. 기도, 영성체 등을 더 잘 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올해는 아마도 제 편에서—제 노력으로—이것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만이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려 하고, 아버지께서도 기억하신다면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하는 모든 것이 좋고 인간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전문적인 일도 [...], 사도직 직무도: 몬텔라르의 산 가브리엘 센터와, 절대 그만두지 않는 산 라파엘(청소년) 사도직도. 자매들을 돕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살고 그분들의 일들을 맡길 수 있어서,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잘 아시듯이, 항상 필요하신 곳 어디서나 기쁘게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아버지 손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도 항상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 필리야(아빌라), 1971 년 7 월 6 일*

아버지께: 하느님과 오푸스테이에 대해 이  
굳건하고 단순한 믿음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비록 매일 더 깊이 파고들어 확고한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더 이해하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어린이의  
믿음과 좋은 신학자들의 교리.

이 순간, 오직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오푸스테이와 아버지를 통해 매일 그 충실함을  
늘려 주신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충성이 되는  
것을,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 신뢰합니다.

*라 필리야(아빌라), 1973 년 9 월 4 일*

이 날들 동안 공부한 과목은 교의신학입니다:  
죽음, 심판, 연옥 그리고 영원한 운명, 천국과  
지옥. 결국, 과목이 정말 아름다웠고 죽음과  
천국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모님께서 도우시고  
곧 뵈기를 바랍니다 [...].

3월 편지에 대해 주석을 달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능한 한 가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용감하게 사실을 사실이라 부르시는 것이  
저에게 완전한 평화를 줍니다. 내면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살지  
못하는 후회도 느낍니다... 우리의 몇 가지  
결점들을 지적하는 개인적인 성찰이 저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 III. 넓은 마음

#### 사도의 기쁨

과달루페를 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미소와 유머를 기억한다. 성 호세마리아는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마음이다"("밭고랑" 795 번)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과달루페는 그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한 듯하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거대한 마음이 그녀의 삶과 기도를 비추었고, 곁에 있는 이들과 그 보물을 나누도록 이끌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크나큰 마음, 사도로서, 딸로서, 자매로서, 친구로서의 강인한 마음이었다.

*빌바오, 1946 년 10 월 1 일*

아버지: 어제 돈 알바로[텔 포르티요]와 돈 페드로[카스차로]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로마의 큰 집과 그와 관련하여 요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여러 일을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제가 자매들에게 조금 초조하고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관심이 부족해 보이면 바로 지적하는데, 특히 콘시와 로세르에게는 때로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들을 이 집을 거쳐 간 다른 자매들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고쳐 나가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투쟁 없이, 따라서 아무 공로 없이) 제 안에 심어 주신 이 열정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만약 노력이 필요했다면 아마 힘이 부쳤을 테니까요.

*빌바오, 1946 년 10 월*

아버지: [...] 돈 호세[신부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특히 자매들에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봉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그 넓은 마음을 그들이 제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딸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빌바오, 1946년 11월 3일*

아버지: 어제 아마도 빌바오에 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될 수 있다는 설레임이  
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저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피델리다드(충성 서약)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해진 연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저는 언제나  
오푸스데이 안에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전엔 마치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  
같고(주님께서도 그것을 잊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아버지, 언젠가 제게는 십자가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하는 일마다 힘들지 않았으니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십자가들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는 자매들에 대한 걱정, 그들의 내적 투쟁을 지켜보는 것, 젊은이들이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빌바오, 1946년 11월 17일*

아버지: 어떤 것을 청할 때 제가 갖는 믿음과 확신이 때로 저 자신도 놀랍습니다. 돈 호세[신부님]께 혹시 허영심이 아닌지 여쭙봤더니 안심시켜 주셔서, 그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저는 아마도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힘겨울 때 어떻게든 도우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좀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을 돈 호세[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온 힘을 다해 싸우며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 많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섯 명이 함께 모이면 정말 즐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장난꾸러기라서 웃음을 자아내려 하지만, 보통은 하느님 현존을 유지합니다. 특별 성찰에서 기쁨과 하느님 현존에 집중하며 [...] 그것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빌바오, 1946 년 12 월 17 일*

아버지: 13 일에 마리추와 라켈이 아침에 왔고, 필라린과 콘시가 오후에 떠났습니다. 모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함께 있는 기쁨이나 헤어지는

기쁨이나, 이것이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서 듣습니다.

마리추가 여러 집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편지를 쓰고 계시고,  
로마에서 돌아오시면 저희에게 전념하실 것이며,  
많은 성소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 길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마다 저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

*빌바오, 1947년 1월 25일*

아버지: 니사가 아버지 편지의 사본을 보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간식을 마친 후, 일요일이라 네 명이 잠시  
부엌에 글로리아와 리카르다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바스크 민요를  
조용히 불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로세르가

가르쳐 준 사르다나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자를 꺾으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올라가 기도를 했고, 저는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 기도 후 저는 “길”을 들고 [감기로 침대에 있던 요리사 마리아의 방으로 펠리사와 함께] 내려가서 "성모님" 챕터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반도 딸들이 일요일 오후를 보냈습니다. [...]

내일 돈 호세[신부님]께서 피정을 주실 것입니다. 일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계속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 아직 오푸스데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이미 저희를 많이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성소를 받아 저희처럼 행복해지거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청은 분명 이 딸의 청보다 더 잘  
들어주실 테니까요.

*빌바오, 1947년 3월 24일*

저희는 아주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때로는  
너무 많이 웃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함께하는 짧은 시간에도 상상 이상으로 모든  
것을 즐깁니다. 저는 때로 진지함을 잃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마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모두가  
저를 많이 존경하도록 해 주십니다.

*로살레스(마드리드), 1947년 6월 25일*

아버지: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세 명이  
모두 기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집은  
매우 밝고, 이미 저와 신뢰의 대화를 나눈

자매들은 큰 솔직함과 단순함으로 임했습니다.  
[...] 저에게는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주님께서 도와 주심을 크게  
느낍니다.

농장과 직물, 그리고 집안일에 많이 신경 씁니다.  
수업은 오후스데이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이곳에 온 이후 가장 강하게  
청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을 많이 담아  
자매들에게 그것을 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 어디든,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멕시코시티, 1950 년 10 월 20 일*

기숙사생들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쪽에서는 항상 기꺼이, 오히려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신뢰하는데,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스무 살쯤 된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은 (감사하게도) 거의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지요... 처음으로 이 젊은이들 중 한 명을 돕기 위해 주님께 더 간절히 청하고, 희생하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확신하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 순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매들과 곧 그렇게 될 이들임을 아버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멕시코시티, 1954 년 11 월 11 일*

아버지: 직접 편지를 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쁘고, 걱정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바로잡거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 느낍니다.

오늘은 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 고해도 잘 못하고, 신뢰의 대화도 잘 못하게 됩니다. 말해야 할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규범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다만 때로 묵주기도와 독서를 다 마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려 하며, 성품을 다스리고, 작은

극기(영웅적 1 분, 앉는 자세, 식사, 매 순간 해야 할 것 하기, 상상력 억제)를 실천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모임과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뢰의 대화에서는 [...]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마 너무 가까워서 보다 보니 충분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대화 전체에서 하느님 현존을 강하게 유지하고, 조언은 거의 하지 않으며 분명히 옳다고 판단되는 것만 합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적고, 또 이제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직에서도 제 나이에 맞게 항상 행동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는 늘 평화와 기쁨 안에 있습니다. 보통 하느님 현존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 그것이 해야 할 것을 피하거나 행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즉,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그다지 강렬하지 않습니다. 믿음, 신뢰, 사랑은 크지만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매들의 헌신 부족 또는 항구함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마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물과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이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언젠든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때로 회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집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학교를 위해 화살기도를 드리는 특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 드릴 수 없으니, 적어도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청하겠습니다.

*마드리드, 1959 년 9 월 25 일*

아버지: 이 편지가 10 월 2 일(오푸스테이 기념일) 전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특별한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주님께 청하시는 것을  
함께 청하고, 아버지께서 감사드리시는 것을  
함께 감사드리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확신하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듯이, 스스로를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자매들의 손에 맡기며 그저 섬기기를 원한다고,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요. [...] 맡겨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나날이 더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몬텔라르 집에서 성 라파엘 활동을 많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활동을 기도해 주세요.  
이 집에 오는 젊은이들의 수가 엄청나고, 정말  
훌륭한 이들이 많습니다. 오후스데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입니다. [...]

아버지, 감사하게도 저는 매우 건강하고, 마음은  
젊고 건강하지만 날마다 더 늙어지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얼마나  
강렬하게 사랑하는지요!

*마드리드, 1959 년 11 월 21 일*

아버지: [...] 몬텔라르 집의 성 라파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쏟고 있으며, 로마와 아버지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한 후 제 기도는 항상 그곳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의 이름에 집중하여 마무리됩니다. 대부분 아주 현대적인 외모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진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화해 보면 착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외모 뒤에 숨겨진 각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성소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 갈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 라파엘 모임과 저희 집들, 그리고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 오푸스데이를 알아 가고 있습니다. 이미 모리노 비에호에서 두 번째 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마드리드 두 번두리 지역의 진료소와 함께 요리교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실, 노동자 여성을 위한 모임과 수업, 헌 옷 모음 등을 조직했으며, 이미 성 라파엘 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가 거의 100 명에 달합니다. 소중한 세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한 젊은이(아주 유명한 가정 출신으로, 학기 초에는 경박한 소녀였는데)가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더니, 몹시 얼굴을 붉히며 그것을 감실 옆에 놓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거의 모두가 오고 갈 때 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저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줍니다.

*마드리드, 1961 년 9 월 29 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바로 제때 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많은 활동과 많은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작은 개인적 문제들을 잊고 일에 몰두하는지를 보면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많이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온 영혼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발렌시아, 1973년 2월 2일*

사랑하는 아버지: 직업적인 이유로 며칠 발렌시아에 와 있어서 여기서 몇 자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온 이유는 1973년 섬유·가정 박람회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다 끝났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잠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준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으려 합니다.

제 이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연구교육센터[CEICID]의 교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때로 이런 수고들을 감당할 체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거절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CEICID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와 그때 저희에게 하신 말씀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저희를 위해,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항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말이에요.

의사들이 저를 다시 진찰했는데, \*심장이 커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참으로 깊은 병이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크든 작든).

#### IV. 봉사하고 싶은 마음.

##### 하느님을 위한 일

과달루페는 성 호세마리아로부터 일상의 산문을 11 음절 시구로 바꾸는 법을, 그리고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자신의 일터임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 덕분에, 화학 공식 속에서, 대학 기숙사 운영 안에서, 집 살림과 오푸스데이의 행정 업무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고귀한 일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임을, 빛나는 일이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과달루페는 성실한 일 처리와 책임감과 헌신으로, 매일의 직업 활동 하나하나에서 ‘신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일반 시민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1945 년 12 월 31 일*

아버지: 제 성명 축일에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맡아 본 적 없는 세탁과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제가 잘못하고 있고, 너무 어리석어서 경험도 없으면서 귀찮을 정도의 자신감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고칩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몰랐던 큰 결점들을 파악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반항적인 기질이 아주 강하고 다소 이상한 생각들 때문에 (어깃장을 놓으려고) 때때로 우리 사이에 사소한 언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깨닫고 니사에게 말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1 분도 안 되어 또 그러고 맙니다. 다행히 니사가 항상 지켜보면서 늘 지적해 주며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기도하기가 꽤 힘들고 자주 산만해집니다. 독서는 며칠을 빠뜨렸습니다. 카르멘이 보내준 인형들로 구유를 꾸몄는데, 이틀 동안 산을 바꾸고 나서 꽤 잘 됐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올해는 제게 정말 부족한 그 섬세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싶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딸을 위해 말씀해 주세요.

*빌바오, 1946 년 8 월*

저는 여전히 꽤 엉망입니다. 며칠 전 성체포를 준비하다가 실을 잘못 뽑았어요. (나중에 고칠 수 있었지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바느질도 매우 서투릅니다.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늦게까지 자지 않은 데다 잠이 아주 많아서, 이틀간은 오후에 글을 쓰다가 잠이 오자 그대로 자기로 했습니다. 서류 위에서, 5 분 정도였지만요.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기도, 하느님과의 일치 등은 청하고 자매들과 봉사에 마음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드리드, 1949 년 7 월 4 일*

기숙사는 거의 비어 있고, 입주 학생은 세 명뿐이며, 나머지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이미 맨 위층과 다락방을 정리하고 청소해서 쓰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옆집을 얻어서 합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

저는 기쁘게 지내며 주님께 제가 (좀 미련해서) 덜 고집스럽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잘 생각하고 싶고 그것을 청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찜이 (별로 없지만) 날 때마다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10 월에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험실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도

사도직을 할 여학생들이 있으니, 잠깐의 시간이라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폴리노비에호 (세고비아), 1949 년 7 월 24 일*

이 집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모두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다고 느끼고, 우리의 사명이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 성녀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성녀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임을 잊곤 합니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다듬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일 수르바란으로 돌아갑니다. 기숙사 확장 문제가 해결될까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확장하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속상하게 해드리는 걸 알지만, 올해도 적자가 났습니다. 총 36,000 페세타입니다. 청빈 정신을 더 발휘했다면 일부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전기료에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꽤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10 월 초부터 두 집 모두 입주자가득 차도록, 입주자 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마드리드, 1949 년 8 월 18 일*

기숙사 운영에 점점 경험이 쌓이고 있으며, 이번 학기의 많은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숙사에 다소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면 선을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제 결점이에요.) 기도 중에도 마음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산티아고에서 편지를 보내 "기숙사에 전념하라"고 하신 이후로 생긴 일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이처럼 깊이 파고드는 것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침 기도의 효과가 몇 시간씩 이어질 정도로 하느님의 현존이 피부로 느껴지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입주자를 구하는 이 걱정이 생기고부터는 [...]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처신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일반적인 생활 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

*마드리드, 1949 년 11 월 1 일*

아버지: 집이 점점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살림 행정에 전념했는데, 부엌에 들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빌바오 이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저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과 순종하며 무슨 일이든 담당하는 것이 제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라가스카에 일이 많아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니, 니사와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머리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과 일이 바뀌면서 규범을 이행하는 데 많이 소홀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심합니다.

*멕시코시티, 1953년 7월 22일*

아버지: 날마다 모든 집들이 점점 더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집 세 곳과 몬테레이의 집이 동시에 이사를 하면서 정신없는 몇 달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느님 덕분에 모두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곧 직접 보러 오시지 않겠어요?

성당이 생긴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잘 되어 가고,  
여학생들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또 각자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저는 가족들의 교육 […]과 재정 문제를  
맡았습니다. (아직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잘  
활용하면 이 집이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쿠아우틀라 (멕시코), 1953 년 9 월 14 일*

아버지: 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3명과  
함께 했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모든 여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임했고, 페드로 신부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누구보다도) 의무와 책임에 대한  
양심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모두의 자세를 보면서 정말  
기쁩니다. […]

멕시코에서의 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회가 사실상 모두 모였고, 책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어려움은 아마 저 자신일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들 지도, 가사 행정, 사도직 등 거의 모든 것을 맡아 왔기에, 제가 손을 떼기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나누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거나, 아니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나, 제게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싶습니다.

*멕시코시티, 1956년 3월 19일*

로마에서 사람들이 멕시코에 온다니 정말 기쁩니다. [...]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너무 오래 책임자 역할을 맡아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 라파엘 여학생들을 위한 피정을 위해, 우리에게 집을 빌려주시는 가브리엘라 씨(수도회 신자)의 쿠아우틀라 집을 정리하러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몬테팔코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당 꾸미기 및 모든 정리로 정말 일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하고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가장 쉬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영적 추진력을 붙여넣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꼭 필요한 여러 덕목(경신, 일, 기쁨, 사도직, 희생 정신 등)을 얻고자 청하고 노력해 왔으며, 모두를 위해서도 청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부에는 영적으로 더 세련된 것들을 바라고 청하는 관상적 영혼들, 즉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이들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적어도 다른 이들이 그것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격려할 은총을 주시고, 저도 그 길을 시도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하느님이 온 영혼으로 원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겸손과 인내도 주십시오.

*마드리드, 1962 년 10 월 1 일*

아버지: 내일 10 월 2 일은 매년 그렇듯 주님과 아버지께 감사로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반 연구소(나바라 대학교의 전신), 소명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와 수도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안에서 안정과 평정을 얻어가는 것.

이 집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문회, 행정, 가정 학교가 모든 사업을 반영하고 있어 각각을 살아가고 맡기기가 쉽습니다. [...]

저로서는, 늘 하던 대로, 맡겨진 일을 잘하고 봉사하려는 바람으로 매우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문회 자매들이 몬테라르의 성가브리엘 사업을 잘 이끌도록 돕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 온갖 소명들, 협력자들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상 일, 즉 현재는 아직 마에스투 학교이지만 곧 여자 중등학교가 될 학원에서의 수업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생활 계획의] 규범을 사랑으로 지키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드리드, 1964 년 12 월 30 일*

아버지: 팜플로나에서 뵈 이후로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아버지를 뵈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럴 권리가 있었고, 어떤 때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별이나 수줍음 없이 그냥 그중 하나라는 느낌이 좋고, 그것이 제 모습임을 압니다.

피정을 한 며칠 후,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제 결심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자매들을 더 아끼고 돕는 것이며, 우선 저희 집 자매들부터 시작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성모님께 많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곧 논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피에다드 데 라 시에르바가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논문은 독창적이며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점은

누군가 비슷한 것을 먼저 출판할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들여 작업했습니다.

현재 교사로 있는 직업 교육 분야의 임용 시험이 있다면 응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말씀하시면 모두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공식 여성 직업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란다 궁이었던 건물에 있습니다. 한 블록 전체(가르시아 모라토, 니카시오 가예고, 코바루비아스 거리)가 학원으로, 아버지와 모두에게 많은 기억이 깃든 환자 후원회 바로 맞은편이에요. (성호세마리아께서 사목을 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셨을지 생각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도직이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12 세에서 20 세 이상의 학생이 거의 1,000 명 있으며, 아직 전공을 시작하지도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학생 중 한 명이 오푸스데이 입회를 청했습니다. 아주 좋은 교수 그룹도 있고요... 아버지,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다양한 환경의 부인들과 여학생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마드리드, 1965 년 7 월 8 일*

아버지: 이 박사 논문에는 수많은 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논문은 방금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것을, 저의 모든 것과 가진 것을 함께, 쓸모 있게 쓰이길 바라며 서둘러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라 피야 (아빌라), 1967 년 2 월 6 일*

임용 시험이 끝나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꽤 오랫동안 편지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는 많은 시간(약 2,000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고, 마지막 분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데 (구술, 필기, 실기 등 다 떨어지는 15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처음 응시한 ‘중등 교육’ 시험에서는 마지막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험이었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드리드에 거의 확실하게 남을 수 있어 가장 원했던 ‘직업 교육’ 시험에서는 합격했습니다. 여성 산업기술학교에서 4 학기 동안 강의해 온 물리·화학을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아버지와 모두에게 많은 기억이 깃든 환자 후원회 맞은편(가르시아 모라토 거리, 니카시오 가예고 코너)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발걸음도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아무것도 저를 묶지 않습니다.)

아버지, 물리노비에호에서 10 월 2 일에 뵈었습니다. 파빌리온 제단 봉헌식에 참석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에두아르도가 마드리드에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의사 노릇을 하셨다면서요.

집에 있는 모두의 가족들이 많은 이유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로스 로살레스 (마드리드), 1969 년 1 월 9 일*

아버지, 저는 이 새로운 일인 가정과학부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벌써 첫 번째 학위 인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강도 높은 세 달이었습니다.

수르바란 연구 센터의 정규생 약 40 명이 듣는 디플로마(1 학년 과정) 첫 학기도 이미 마쳤습니다. 두 그룹 모두 강의했고 가르치는 일에 제 역량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할 새로운 기쁨입니다. 제 직업상 일이 정말 소중한 집의 이 사업, 즉 [살림]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6 개 국적의 학생들이 있고 이제 일부는 박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평화를 줍니다.

*마드리드, 1971 년 3 월*

기쁘게 지내며, 기도하고, 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업하는 외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작은 연구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마쳤는데, 가사 행정의 실천과 과학적 지식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시작이 있어야 하니까요.

*라 피야 (아빌라), 1973 년 9 월 4 일*

다음 학기에는 자매들과 함께 사도직과 집에 많이, 잘 전념하고 싶습니다. 일에서도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공식 직업 교육 학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섬유에 관한 책 출판과 함께 연구 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가정과학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팜플로나에서 수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저를 통해 올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조금 기도해 주세요.

*마드리드, 1974 년 1 월 13 일*

아버지: 월피정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머릿속에 모아둔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늦어지기도 하지만,  
모두 간직해서 성당에서 주님과 아버지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

한 가지 일화로, 십 년째 수업하고 있는 학원에서  
(저는 이미 임용 고시를 거친 정교사입니다.)  
제게 교장이 되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제안했고, 다음에는  
교사들(약 40 명)도 제안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거절해야 했습니다. [...]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없고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절해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5 세에서 25 세의 학생이 1,000 명 이상입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제 체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

가정과학부에서는 지난 분기에 제 학과 논문 두 편을 심사했습니다. 하나는 인정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의 첫 번째 논문입니다. 작업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아주 흥미로운 실용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잘 알려진 세제 공장 실험실에서 진행했는데,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논문 저자인 베아트리스에게 꼭 남아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팜플로나 클리닉에서 보냈는데, 꽤 강도 높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고 모든 작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5 년 전 심장 카테터 검사를 받았을 때와 판막 상태가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좀 더 나빠졌지만 약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버지, 저와 이 집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서도 관대함이 부족하지 않게 하며, 제가 자매들을 잘 이끌며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에 둔 모든 지향들, 즉 교회, 교리,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쁘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며 잘하고 싶습니다.

## V. 여기 있습니다.

### 길과 사명.

예수님께서서는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오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과달루페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달루페가 성 호세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녀가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해줄 수 없소. 원한다면 내가 당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고해를 들어주고 당신을 알아갈 수 있소...".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합니다. 과달루페는 마태오와 같은 자세로 하느님께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녀 역시 일어나 주님께서 오푸스데이 안에 마련하신 길을 따라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빛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고귀한 에너지를 어떤 활동에 바치도록 이끄는 신비로운 충동이며, 그 활동은 실천을 통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눈사태처럼 거세게 밀려드는 이 생명력을 다른 이들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편지, 1932년 1월 9일). 성 호세마리아의 이 말씀은 과달루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바오, 1946년 3월 17일*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은 앞에서 내일은 맨 뒤에서라도 주님을 섬기기에 항상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지고 제 자신의 힘에 대한 의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니사가 떠난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진심으로 간청 드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집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순간 자매들을 그분께 이끌고 싶습니다. (니사는 당시 빌바오 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니사가 마드리드로 이주한 다음에 과달루페가 원장이 되었습니다.)

*빌바오, 1947년 4월 30일*

아버지: [...] 집안 돌아가는 이야기 등은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으니, 오늘은 조금 이기적이 되어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승천 대축일은 제가 공동체에 들어와 산 지 벌써 여러 해가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푸스테이에 완전히 입회하고 싶습니다. 이를 주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성격이 많이 어리숙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수천 가지 결점이 있겠지만, 제 성소와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만큼은 매우 큼니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게 시키시는 대로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이미 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마드리드, 1947년 5월 17일*

아버지: 오늘 아침 페드로 신부님께서 수르바란에 오셔서 종신 서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지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하고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하느님의 사업 덕분이니, 하느님께서 제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기쁨 등)을 오로지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Asesoría)에 합류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부분은 덜 실감이 났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서든 순명하고 분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마드리드, 1948 년 8 월 31 일*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 모두 더 잘하려는 열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며칠 동안 저는 제 결점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결점들이 매우 크지만, 아버지와 호세 마리아 신부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영적 대화를 나눌 때 그분들이 제 결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제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제 결점들을 스스로 해석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고,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더라도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거의 그것 만을 청할 정도로, 머리를 맡고 있는 분을 통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비록 기도 중에 꽤 멍해 있을 때가 있고, 힘든 집 문제, 성소 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지도 못할 때) 마음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그 행복감이 너무 커서 나중에 그 기억만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기숙사에 학생들이 꽉 채워지고 착한 아이들이 되기를! [...]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이들이 결심하여 성인이 될 수 있기를! 비록 공부를 매우 조금밖에 못 하지만,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칠 수 있기를! 올해 명하시는 것을 돕는 데 순종적이기를! 자매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그들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저의 유일한 장점은 항상 기꺼이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일 겁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드리드, 1949 년 5 월 16 일*

아버지: 교육 과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학생들은 매우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하느님의 사업을 거의 알지 못하면서, 열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심지어 결심까지 하는[이 길을 따르기로] 학생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감탄하며 돌아왔을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일을 잘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많은 결점이 보입니다. 지금은 경건 수련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차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산만함과 싸우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날 중 하루였습니다. 새로 온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들에게 소모임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성소가 완전히 굳건  
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은혜를, 하느님께서  
아마도 저를 다른 이들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보셨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저에게 주신 것에 단  
한 순간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서 우리의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올곧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이 너무나 분명하여, 깊이 알면 알수록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만이 필요한 것의  
전부임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느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수천 번  
사셨기에 이해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치  
제가 그 순간들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요.  
기도실을 나오면서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도직이 저를 열광시키지만 대부분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장담합니다). 때로는 그냥 짐을 나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멕시코시티, 1950년 6월 29일*

아버지: 오늘은 저 자신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듯이 저는 보통 너무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라,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만 편지로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 내적 외적 삶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구요. 오늘처럼 어떤 특정한 날에만 저는 잠시 멈춥니다 (더 정확히, 주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떨어져 한순간 제 마음의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그분 자신을 제 안에 심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날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강한 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대체로 감각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사물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제가 노력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 친히 제 삶을 정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큼니다. 제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일하며 섬기고 [...]; 영적으로는 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제가 함께하는 모든 자매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더 효과적이지 못한 무력함입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것에 무감각한 편인데, 저의 부족한 관대함 때문에 버터처럼 녹아버립니다. 그것을 티 내지 않게 견디지 못하고 (두 번 기억이 납니다) 그중 한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성소의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어리석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 슬픔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적게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저 자신도 그들만큼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크게 돕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상황에서 저도 그들과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의 내적 평화, 성소의 확신, 인내심에 대한 신뢰를 전혀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도직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마음을 완전히 열지만, 우리가 그들을 양성하고, 도우며, 손을 잡고 하느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매우 작다고 느끼지만, 이 사명을 위해 저는 순명 안에서 무엇이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솔직할 것입니다.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안식이며, 그 덕분에 저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기도 중에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도, 페드로 신부님과 이야기할 때도, 저를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비워내면 주님께서 제 위에 있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가볍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 베드로 축일에, 저는 아버지와 너무나 하나가 된 느낌이고 하느님의 사업에 완전히 귀속된

느낌이어서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위안이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생각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시고, 가끔 저도 모르게 아버지께 드린 모든 고통을 용서해 주십시오.

*멕시코시티, 1951 년 6 월 1 일*

아버지: 페드로 카시아로 신부님의 도착과 그분이 가져오신 모든 좋은 소식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아버지, 멕시코의 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지 아신다면,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진정한 자녀 다움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자매들도 그것을 생생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

저는 오직 아버지를 통해 하느님께 경이로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동시에 저희를 잊지 마시고 마음보다 머리가 부족한 이 딸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동안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성모님께서 영원히 오푸스테이에 새로 들어온 자매들이 자라고, 제 자리가 가장 숨겨진 자리가 될 때도, 똑같이 저를 도우실 거라는 신뢰와 확신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요!

*멕시코시티, 1952 년 11 월 16 일*

지난 일요일에 코펜하겐 거리에서 첫 번째 노동자 피정을 했는데 70 명이 왔습니다. 페드로 신부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후안 안토니오 신부님께서도 미사 전에 매우 많은 이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매우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 목요일에는 부인들을 위한 피정이 있었습니다. 40 명이 왔습니다. 한 분은 협력자로 입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분들조차 경박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음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더군요.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데 하느님의 사업이 그것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에 개입하게 될 거라고는 평생 생각도 못했는데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

*멕시코시티, 1954년 2월 28일*

저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때, 때로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것 만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아버지도 이미 저를 아시지요. 저는 작은 동물과 같습니다. 강하고, 명랑하고, 때로는 마음이 넓지만, 때로는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14일, 성모 성당에서 성모님께

지금까지처럼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축복을 청합니다. 하느님의 사업과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1955년 12월 12일*

오늘 아침 공부 센터의 기도방에 성체를 모셔드렸습니다. 영구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성화 (큰 그림)가 있고, 제대는 초록과 금색의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모조품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감실은 유리문이 달린 금빛 목제품입니다. 모두 아우로라가 금박과 조각 기술을 배우고 있는 공방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집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을 거쳐 가는 모든 성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매우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제 성인 축일이라, 멕시코에서는 아무도 이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러 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성체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와 세계 여러 곳의 모든 자매들도 저를 기억해 주셨음을 압니다. 가족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모두가 오푸스테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두아르도와 라우리타 (공동체에 사는 이들)는 행복한 편지를 썼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개인적인 성덕뿐입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경건하게 수련을 이행하고, 봉사하려는 의지와 함께 제 고집도 다스리면서 (그것이 강합니다) 항상 기쁘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적이고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의 연장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사업을 개인 통치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나누고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일하기 위해, 여러 번 제 판단을 내려놓으며 최대한으로 노력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오랫동안 앞에서 이끌어왔는데, 이제 뒤를 따르는 것을 시작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든 또는 다른 어디든 오푸스데이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몬테팔코 (멕시코), 1956년 2월 15일*

아버지: 우리 자매들을 위한 한번의 피정을 위해 이곳 몬테팔코에 와서 편지를 드립니다. [...] 피정은 매우 잘 한 것 같고, 하느님과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멕시코에서 확장과 영적 깊이의 새 시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와 모든 이들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간청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필요합니다. 이제 영적 지도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 고정된 고해신부가 있고, 앞에서 이끄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는 법을 알고 거룩해지도록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임임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집에는 오푸스테이의 정신과 유순함을 가진 아버지의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성 십자가 요한의 생애를 읽었는데, 그가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신과는 다르지만 더 쉽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올바르게 살아낸다면) 얼마나 크고 또한 이보다 더 클 수 없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마드리드, 1959년 5월 28일*

아버지: 어제 마리아 엘레나가 저희 집 모임 시간에 로마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해주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 합니다. 충실함, 행복, 충성심.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 (이미 15년이 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제 지도자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열심히 그렇게 하려 합니다. 오푸스테이는 제 자신이며 이제는 달리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아버지, 협력자 활동 전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각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진료소와 교리 교육을 하는 빈민 지역에서도 소박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발데베바스에서 (18 세에서 20 세 사이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일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소모임의 여학생 그룹의 소풍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미 꽤 먼 곳은 다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더

맡겨주십시오. 당나귀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드리드, 1960년 2월 7일*

아버지, 이 날을 맞이하여 감사로 가득 찬 기억과 함께, 공동체에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매들과 제가 하고 있는 사명에 대한 저의 사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

아버지, 중앙 자문회가 이제 완전히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 세계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자매들을 위해 힘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 가브리엘의 사명을. 저는 항상 그렇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넘치고 어떤 순간이든, 어느 곳이든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저는 인간적으로 두더지이지만, 하느님과 오푸스테이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1960년 3월 19일*

아버지: 오늘 성 요셉 대 축일에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기억했습니다. 미사 중에 [...] 조용히 충실함에 대한 갱신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주님께 공동체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하고 견고한, 인간적이고 신적인 충성심을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느낍니다. 자유로운 정신과 마지막 인내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크고 작은 것에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서 날마다 더욱 정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어 다른 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뿐 아니라, 오직 하느님과 지도자들과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에서도 말입니다. 그들과 제 아버지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들을 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수천 개의 성소들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미 아시다시피 저를 지배하는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직입니다. 제 열망이 날마다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커지고, 아버지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세월과 함께 직접적인 라파엘 사목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며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또다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순간들을 사는 젊은이들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드리드, 1963 년 2 월 14 일*

아버지: 모든 큰 축일처럼, 오늘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기억했습니다. 공동체 자매들과 모임에서 초창기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모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인내에 감사드리고 걸어온 길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큰 평화를 줍니다. 감사드리고 성소들을 청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많은 사도적 사명으로  
둘러싸여 있게 해 주신 하느님의 섬세함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많은 자녀를 주시는  
어머니들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 집중적인 양성의 시기도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학생으로 참여하는 철학 수업과 교수로  
가르치는 물리화학 수업 (제 직업 활동) 모두  
매우 즐겁습니다.

*마드리드, 1963 년 3 월 19 일*

아버지: 기도를 드리며 편지를 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모두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있고,  
주님과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오푸스데이와 제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사하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그렇듯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일하고 사도직을 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아버지께서  
저를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입회를 청하는 편지를  
드린 지 1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때도 거의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말을 후렴처럼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에필로그

이 책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달루페가 성호세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1975년 6월 22일 자였습니다. 22일 전, 그녀는 또 한번 위험한 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 나바라 대학교 부속 클리닉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 며칠 동안에도 과달루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클리닉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기 들어온 지 22일이 되었고, 이달이 끝나면 심장 전문의들이 ‘심장 판막’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평온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예년처럼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다만 조금씩 더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 교육과 가정관리학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리스타 센터에 거주하며 그곳의 책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메리카 교리 교육(1975년 초 몇 달 동안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신 사목 여행)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저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탁해 왔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시는 과달루페 성모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민족에게도 이같이 아니 하셨다”라는 성모님의 표어는, 그 땅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에게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의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일과 제가 상상하는 일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6월 26일, 성 호세마리아는 로마에서 갑작스럽게 선종했습니다. 과달루페는 큰 슬픔 속에서도 성 호세마리아가 이미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화와 기쁨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며칠 뒤 바로 그 평온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원해 있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늘 자신을 돌봐 주는 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면서도, 온전한 신뢰로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7 월 1 일  
수술의 결과는 만족스러웠지만, 회복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을 겪었습니다.

1975 년 7 월 16 일, 떠오르는 첫 햇살은  
과달루페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심장이었지만,  
그 심장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박동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달루페 자신도  
자신의 병이 “매우 깊다”고 여겼는데, 이는 그  
병의 중합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께 드려 온 청원, 곧 “주님, 저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청원에 응답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도우시어,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 마침내 늘  
향해 가던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